

출가, 환상과 유혹을 넘어서



출가
윤영관 · 이민우 글/사진
동아시아 | 9천8백원

“머리 깎고 산에나 들어갈까?”
삶이 힘들고 좌절할 때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내뱉어본 말일 것이다. 경제가 힘들수록, 삶이 꾸러가기가 어려울수록 출가에 대한 환상과 유혹은 커지게 마련이다. 지난해 월정사(주지 정념)가 개설한 ‘단기출가학교’에 매년 수백여명의 신장자가 불린 것도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출가-마음을 찾아서〉는 같은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TV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월정사 단기출가 1기생들의 한 달 생활을 내레이션을 그대로 담아낸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출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책에는 1기 단기출가생인 이민우씨(프리랜서 카피라이터)의 출가일지와 프로그램을 제작한 윤영관 PD의 제작기가 함께 담겨 있다.

14살의 문경원군부대 70세의 송광섭씨 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출가’를 감행한 52명이 같은 공간에서 한 달을 함께 살아야 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사회에서 한 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었던 휴대전화와 담배, 돈, 카메라 등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매일 감고 다듬었던 머리카락을 날카로운 삭도기로 밀어낸다. 입고 온 옷은 사물함에 넣고 행자복으로 갈아입는다. “입고 왔던 옷을 다시 입게 될까?”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스친다.

그러나 막상 출가학교 입정이 시작되자 ‘깨달음’이라는 큰 목적

은 간데없고 낮설음과의 사투가 이어진다.
“하루에 열두 번은 더 마음이 곤두박질치며 틀러코스터를 탄다. 출가를 해야지 말아야지, 동고동락하는 행자들이 좋다 싫다가, 예뻐도 신성하다가 연극 같다가 한다. 태극권과 요가를 가르치는 스님은 강의 때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고르기를 잘하라 하신다. 호흡하기도 힘든데 마음 조절은커녕, 무슨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
바쁜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군대 이등병’ 처럼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기만 하다. 얼른 예불과 청규(淸規)를 몰에 익히고, ‘나’를 찾는 ‘참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만 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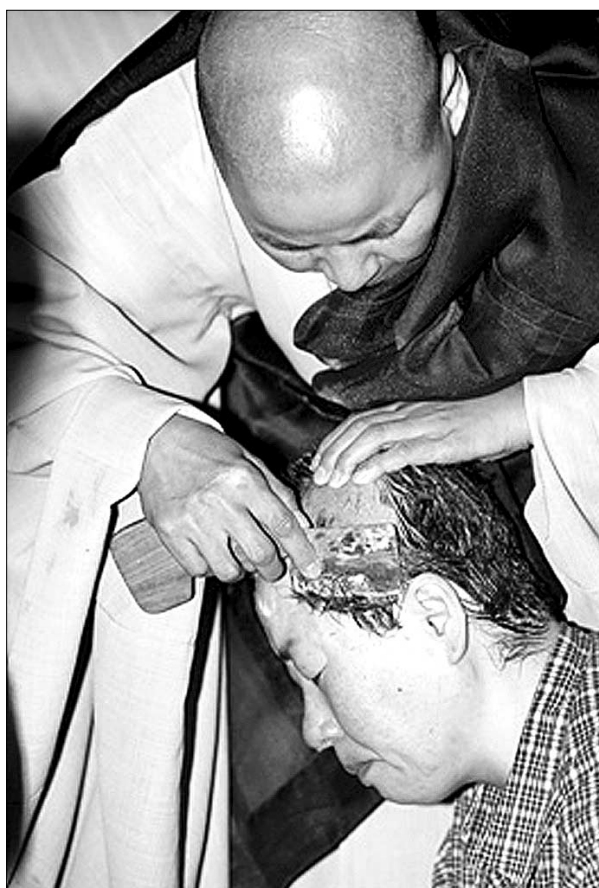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 카피라이터의 출가일지와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기 담겨

“단풍 들 듯이 중물 들면 좋겠어. 저렇게 나한테 시절 인연이 와 닿았으면 좋겠어...”

한 달간의 단기출가 과정 동안 참가자들이 얻은 것은 각자가 품은 고민의 폭과 깊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참가자 중 더러는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된 이도 있고, 대부분은 다시 사회로 돌아와 ‘지금 현재’를 더 치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이 그리고 단기출가학교가 ‘출가’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다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출가’와 ‘깨달음’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正覺)’. 처음 도를 구하겠다고 간절



현대인들에게 ‘출가’는 어떤 의미일까? 세속의 탈출구로서 출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월정사 단기출가자들은 ‘마음의 출가를 먼저 하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한 마음을 일으킨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라는 말이다. ‘단기출가학교’라는 방편은 진정한 ‘출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먼저 둘러보고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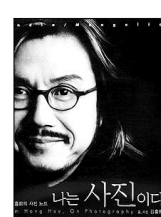
■ **〈참사람의 향기〉**(대한불교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펴냄, 비매품)=평생 ‘참사람운동(無位真人)’ 펼쳤던 서용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서용상순 대종사 문도들이 펴낸 추모집. 서용 스님의 법어와 오도송을 모은 ‘참깨달음의 세계’, 선이란 무엇이고, 선을 오늘날의 문화와 예술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과 현대사상’, ‘참사람의 길’ 등이 담겨 있다. 불교계 잡지와 신문에 실린 인터뷰와 대담도 읽을 수 있다. (061)392-7502



■ **〈속을 보이는 사람들〉**(해광 스님 지음, 열린출판, 9천원)=15년 동안 인천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해광 스님(금강산원 주지)의 에세이 모음집. 3만원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걸망 하나로 시작한 포교활동의 어려움과 불단과 법탁, 요사채까지 직접 만들어 포교원을 운영한 일들을 원고지에 옮겼다.



■ **〈나는 사진이다〉**(김홍희 글/사진, 다빈치, 1만5천원)=〈암자로는 가는 길〉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인도기행〉 등의 책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선보여 온 사진작가 김홍희씨의 사진 노트. 인터넷 사진 동호회에 ‘날 때부터 프로냐’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과 2003년 인도와 몽골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함께 모았다.



만화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핀다 해암 스님 글/그림 | 리빙북스 | 1만1천원
만화로 보는 선사들의 공부법 김현식 글/그림 | 문자항 | 8천원
마음이 싹싹크는 불교이야기 129 양태석 글/이재순 그림 | 바다가보이는교실 | 8천원



만화로 엮어진 불교책은 항상 반갑다. 그 종류가 워낙 적기도 하지만, 만화가 주는 여백의 미와 그 속에서 전해지는 촌철살인의 가르침이 불교와 맞아 있기 때문이다.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핀다』는 출가 전 교편을 잡았고 현재 한국만화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암 스님이 펴낸 만화수상집이다. ‘일상’ ‘사랑’ ‘나라’라는 세 가지 큰 주제로 쓴 글과 그림을 엮었다. 수행자이자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시콜콜한 고민과 유혹을 짚어내고 있다. 스님은 금성출판사의 『한국인물사』 『세계인물사』 등의 학습만화를 그렸다.

세속의 공부나 불가(佛家)의 가르침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선사(禪師)들의 공부법은 무엇일까? 『만화로 보는 선사들의 공부법』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라’ ‘너의 생각으로 보아라’ ‘네 공부 주제를 놓치면 죽는다’

‘하나에 안주하면 공부는 그만이다’ 등 선사들이 가르쳐주는 ‘특별한 공부법’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을 깨달아 이 세계를 초월하는 사람이 되고자 공부한다”는 제자에게 스승은 “공부는 땅과 하늘 사이에서 제대로 살고자 힘”이라고 말한다. 책임기만 반복하는 제자에게는 “책만 읽는 것은 그물망에 바람 날기”라며 “책을 무조건 배척하지도 말고, 책에 지나치게 빠지지도 말고 자신을 지키라”고 가르친다.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면 거기엔 분명 깨달이 있어. 내가 무언가 섭섭하게 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섭섭한 씨앗’을 친구의 가슴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미움이라는 싹’이 틈 것이지요”

불교경전과 계승을 가려 그림으로 엮은 『마음이 싹싹크는 불교 이야기 129』는 아이들의 ‘마음공부’에 도움이 될만하다. <숫타니 파타>와 <자타카> <법구경> <열반경> 등에 등장하는 일화들을 쉽게 풀어쓰고 만화와 함께 엮었다. 부모와 아이가 하루 한 편씩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여수령 기자

無로 세상을 보니...



無로 바라보기
지명 스님 지음 | 오늘의 책 | 9천원

“생이란 무엇인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지난 2004년, 무려 5개월간 낚은 무중력 요트로 태평양항단을 완주한 지명 스님(前 범주사 주지)은 이 물음에 대한 단상을 <無로 바라보기>로 묶어냈다. 1년 여간 일간지와 불교 잡지에 연재했던 칼럼들을 모은 이 책에서는, 선승답게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화두 ‘무(無)’자로 이야기를 이끈다.

때문에 스님이 풀어난 ‘무’는 책을 읽어가게는 말머리가 된다. 여기에서 ‘무’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한히 변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스님은 무아(無我)의 음미와 대자유를 그리며 이 무자를 쓴다고 말한다.

이런 스님의 생각은 물과 바람에만 의지해 태평양 바다를 건너면서 절감한 ‘물과 바람’의 가르침에서 엿볼 수 있다. 물이나 바람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다만 변하는 것은 상태일 뿐이라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사아문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불광
3	입보리행론	산티 데바	하안연꽃
4	오제특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5	도심 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 현 준	효림
6	물 속을 걷어가는 달	김 진 태	학교재
7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8	말씀 부처가 보인 길	정화 스님	효림
9	숨을 가져가게 잘 쉬는 법	형건 스님	부타의마을
10	이판사판 화엄경	성범 스님	정신세계원

도서 안내: (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억 3천만 원의 계승을 막았지만 시원하게 풀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장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제종지를 통달한 인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영가 천도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오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경경복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최재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두암팔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올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졌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생활상담, 최면-저생상담, 빙의치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지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환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 교육학박사, 상담심리 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와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습니다.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mindcoach@naver.com



성도 힘량

참회하는 마음 > 갖는사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기쁨을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적,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원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신중심회기도
야후검색창에 **해원사** 라고 치세요
031-736-3734 · 732-3790